

고봉 기대승의 청소년기와 교육문제

박균섭*

고봉 기대승의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 확립과 윤리의식 함양에 관한 실존적 고민과 주체적 노력을 보여준 시기였다. 기대승이 청소년기에 추구한 지식과 학문에 대한 가정은, 이를 능력이나 재능의 발휘점으로 취급하는 오늘날의 지식교육에 관한 단상과는 범주를 달리한다. 기대승이 청소년기의 삶의 주제로 삼은 것은 도덕, 수양, 성찰 등과 같은 교육의 일차적·근본적인 가치였다. 지식과 학문은 그 무엇을 향한 수단적 기능을 수행한다기보다는 그 자체가 삶의 이상과 인격 형성의 기반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본질적 중요성을 갖는다. 이는 전통사회에서 지식과 학문이 도덕학이라는 성격을 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는 교육의 내재적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는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단순한 지적 변화나 기능의 신장을 교육의 주된 과정으로 거론하거나,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회적 고립 및 비인간화 양상을 드러내는 패행교육의 실상에 비추어볼 때, 기대승이 보여준 청소년기의 삶의 주제와 지향점은 청소년 문제 해석을 위한 중요한 조회의 틀로 작용할 수 있다.

I. 머리말

고봉 기대승(高峯 奇大升 : 1527~1572)은 퇴계 이황(退溪 李滉 : 1501~1570)과 더불어 사단칠정 논변을 통해 한국 성리학의

* 성균관대 강사

논의범주를 확장하고 정밀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던 인물이다. 흔히 알려지기로는, 기대승은 이황과 학문적인 논쟁을 벌였다고 하지만, 그것은 논쟁이라기보다는 제자와 스승간의 격의 없는 학문 토론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다. 7년간의 논쟁 운운하거나 심지어는 신진 학자가 노학자를 압도했다는 식의 표현은 후인들의 과장 섞인 주장에 가깝다. 기대승과 이황의 만남은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바 있지만(『高峯年譜』 1558年 10月, 1568年 7月, 1569年 3月), 두 사람은 주로 광주와 안동을 오가는 수많은 편지글을 통해 학문의 세계를 넓히고 인간 이해의 깊이를 더하였다. 그만큼 기대승과 이황은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생 양모하는 마음과 끈진한 정을 한껏 드러냈다고 말할 수 있다.

기대승은 1570년 5월에 고마산(현 낙암산) 남쪽에 ‘낙암(樂庵)’을 세우고 그 아래 동쪽에다 학문 연마를 위해 찾아오는 자들이 묵을 수 있도록 ‘동료(東寮)’라는 몇 칸의 건물을 세웠다. 기대승이 이황에게 올린 글에 “집 가까운 산기슭에 조그마한 암자를 새로 짓고는 한가하게 지내며 쉴 곳을 삼을까 하여 ‘낙(樂)’자로 현판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전에 보내주신 편지의 ‘가난할수록 더욱 즐길 수 있어야 한다(貧當益可樂)’는 말씀을 취하여 제가 사모하는 마음을 붙이려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高峯年譜』 1570年 5月). 기대승이 이황을 스승으로 받들고 흠모하는 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기대승이 이황을 만나 스승으로 받들기 시작한 것은 그의 나이 32세 때의 일이다. 기대승의 학문적 성장과 삶의 목표에 대한 전체적 전망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의 청소년기의 삶과 교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대승에 관한 연구는 주로 철학사상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서 연구 주제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일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황의동, 2002 : 251-259). 기대승의 청소년기를 논의 주제로 한 고찰은 아직 선행 연구를 접할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대승의 학문적 토대와 사상적 범

주를 그리는 데 작용했을 청소년기의 삶과 교육 문제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자 한다.

집안으로 보면 기대승의 숙부인 복재 기준(服齋 奇遵)은 정암 조광조(靜庵 趙光祖)의 문인이며 사림과의 한 사람으로 신진사류가 참 변을 당할 때 온성(穩城)으로 귀양갔다가 사사되었다(『學圃集』, 卷9, 「己卯黨禁錄」). 기대승의 부친 물재 기진(勿齋 奇進)과 숙부 기준은 “우애가 각별하여 항상 한 이불을 같이 덮고 누워서 ‘우리 형제가 모름지기 세상의 한 구석을 말아야 할 것이다’”고 다짐했던 사이이기도 했다(『高峯續集』, 卷2, 「過庭記訓」). 이로써 보면, 기묘사화의 불행이 기대승의 청소년기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대승이 정치가로서의 위상보다는 학자로서의 명성이 높은 인물이었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기대승은 유교적 가치관에 충실한 삶을 살았으며 속유(俗儒)들의 아집과 독선을 멀리한 고결한 선비였다. 기대승은 사군자(士君子)의 평생사업은 따듯이 입거나 배불리 먹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高峯續集』, 卷2, 「上從兄書」). 이와 같이 정치·사회적 입신출세가 아니라 학문을 탐구하고 덕행을 쌓는다는 삶의 기준이야말로 기대승의 청소년기를 통해 형성·정립된 것이었다. 인생의 단계에서 청소년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인격이 형성되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대승의 청소년기에는 어떠한 지식과 학문이 어떠한 정황과 배경 위에서 형성·정립되었는가에 대한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대승이 19세 되던 해는 을사사화가 일어난 해였고, 그는 이 사화를 징계하여 ‘자경설(自警說)’을 지었다. 기록에 의하면, 기대승은 “사화가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는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을 흘리며 두문불출하였다. 한편 ‘자경설’을 지어 스스로를 경계하였다”고 했다(『高峯年譜』 1545年). 한창 이상의 세계를 그릴 나이에 겪은 이 피비린내 나는 권력다툼은 그에게 심각한 충격으로 다가

왔음이 분명하다. 기대승이 ‘자경설’을 지은 것은 지금까지의 삶의 과정에 대해 스스로를 경계함과 동시에 앞으로 인격 함양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보인 것이다. ‘자경설’은 기대승의 청소년기의 삶과 교육에 관한 지향점을 포괄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긴요한 자료이다. 본고에서는 기대승의 ‘자경설’과 여러 기록을 토대로 하여 기대승의 청소년기와 몇 가지 교육 관련 문제를 검토하고자 하며, 필요에 따라 이에 대한 지지와 방증을 위해 유교 경전 및 그 밖의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II. 정훈(庭訓)의 범주와 지향

유교사회의 교육에 관한 구상에 비추어볼 때, 8세라는 연령은 학문의 세계에 입문하는 결정적인 시기이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적 길목에서 기대승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비통함을 겪어야 했다. 기대승은 어머니를 여윈 충격과 슬픔, 그리고 이로 인해 굴절된 공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7세가 되어 비로소 가정에서 수학하였다. 8세 되던 해 7월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비통함을 당하여 이로 인해 학업을 그만 두기로 결정하고 다시는 학문을 일삼지 않았다. 대체로 아버지도 방금 큰 변을 겪은 터라 나를 가르치지 않으셨다. 9세에 『효경』을 읽고 글씨도 배우고 또 『소학』을 외기도 하여 자포자기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 뜻밖에 하늘이 재앙을 내리고 귀신도 역시 무정하여 10세 때 겨울에 작은누이가 역질로 죽었다(『高峯續集』, 卷2, 「自警說」).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기대승의 슬픔의 크기를 보여주는 글을 보면,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슬피 울며 비통해 하므로 사람들이

차마 들을 수 없었다”(『高峯集』, 附錄卷1, 「行狀」)거나 “항상 어렸을 적에 어머니를 여의어 미처 복(服)을 입지 못했던 것을 슬프게 여겨, 휘일(諱日)이 돌아올 때마다 반드시 한 달씩 소식(素食)을 하며 애모하는 마음을 변치 않았다”(『高峯集』, 附錄卷1, 「諡狀」)고 했다.

기대승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면 그 빈자리는 어떻게 채워졌을가에 대해 물을 필요가 있다. 보통 이러한 경우 할머니의 역할이 기대되지만 기대승의 경우 할머니는 그가 태어난 지 1년만에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모두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기대승 형제가 어떠한 보살핌을 받았는가에 대해 기대승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① 외할머니의 외할아버지의 첩이 되시는 분은……우리들이 어머니 여윈 것을 불쌍히 여겨 매우 극진히 돌보아주셨다. 나이 80이 넘었는데도 듣고 보는 것이 조금도 어둡지 않으셨다. 항상 나를 어루만지며 “반드시 큰 인물(大人)이 될 것이니 열심히 글을 읽으라……”고 말씀하셨다(『高峯續集』, 卷2, 「自警說」).

② 외종조모께서는……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우리들을 마치 자식처럼 여기시며, 추울까 염려하여 옷을 입혀주시고 주릴까 염려하여 밥을 먹여주셨다. 내가 무엇을 알았겠는가. 오직 외종조모가 내 어머니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때 이르러 별세하시어 영원히 이 세상을 하직하시니, 이 한스러움을 어찌 다하겠는가.……지난 번(8세: 1534년)에는 우리 어머니를 빼앗아가고 이제(15세: 1541년)는 또 우리 외종조모를 빼앗아가나…… 어찌 나에게 이처럼 모진 고초를 내린단 말인가. 아버지 봉양하는 일을 비롯하여 많은 식구들과 어머니 여윈 우리 두 형제에 이르기까지 먹을 것이 부족하거나 옷이 해지거나 하면 어디에다 말하여 얻을 것인가.……밤낮으로 학문을 계속하여 입신양명하기를 바라던 것도 이제는 외종조모를 영화롭게 봉양하는 데는 쓸모가 없게 되었다(『高峯續集』, 卷2, 「自警說」).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부모의 죽음이나 가족이 불행을 겪게 되는 경우, 그 비통함을 이겨내기 위한 힘겨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 기대승의 경우에는 망극의 비통함을 이겨내기 위해 산사에 들어가 글공부에 매진하는 결단으로 이어졌다.

아버지는 환난과 재앙이 거듭되자 산사(山寺)로 피해 들어가셨으므로 나도 따라가서 글을 읽고 글씨도 익혀 자못 진취의 희망이 있었다. 10세 때 겨울부터 11세 때 가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가 산사에 계시다가 늦가을에는 서울에 가실 일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셨다. 나는 그 때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아버지가 서울에 가신 후로 나는 집에 있는 것이 마음에 맞지 않았다. 10월초에는 스스로 분발하여 서당에 가서 『대학』을 다 배우고 이어 『한서』 및 한유(韓愈)의 글을 읽고 나니 그 해가 벌써 저물었다. 인하여 집에 내려와 근친하고 또다시 올라가서 『맹자』와 『중용』을 읽었고 항상 동료들과 더불어 연구(聯句)를 짓고 또한 다른 저술도 하였는데, 사람들이 모두 나에게 학문의 가능성(學性)이 있다고 칭찬하였다(『高峯續集』, 卷2, 「自警說」).

기대승은 부친을 따라 산사에 들어가 1년 가까이 공부하였다. 그리고 산사에서 내려와서는 집에서 혼자 공부하면 구애되는 것이 많다고 여겨 마침내 11세에 향숙(鄉塾)에 가서 글을 읽기로 하고 날마다 독서계획을 세워 더욱 부지런히 공부하였다. 기대승의 독서계획과 이의 이행에 관한 사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高峯續集』, 卷2, 「自警說」 및 『高峯年譜』에 의함).

- 9세(1535년) : 『효경』, 『소학』
- 11세(1537년) : 『대학』, 『한서』, 한유(韓愈)의 글, 수학(數學), 육갑(六甲)
- 12세(1538년) : 『맹자』, 『중용』, 『고문진보(전집)』, 고부(古賦), 『고문진보(후집)』
- 13세(1539년) : 『고문진보(후집)』, 『사략』
- 14세(1540년) : 『사략』, 『논어』, 『서전』, 『통감강목』
- 15세(1541년) : 『시전』, 『주역』
- 16세(1542년) : 『주역』
- 17세(1543년) : 『전한서』, 『후한서』, 『여지승람(輿地勝覽)』

18세(1544년) : 『맹자』, 한유의 글, 『문선』, 『상서(商書)』

기대승은 9세가 되어 비로소 『소학』을 공부하였다. 이는 8세가 되면 『소학』을 익혀 예의염치의 도리를 알도록 했던 전통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1년 늦은 셈이다. 그것은 기대승이 8세 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남으로써 학문에 힘쓸 입장에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대승은 11세 때 향숙에 나가 공부하면서 김집(金緝)이 ‘식(食)’자를 시제(詩題)로 하여 글짓기를 시험하자, “음식을 먹음에 배부름을 구하지 않는 것이 군자의 도이다(食無求飽君子道)”고 답하였다(『高峯年譜』 1537年). 이는 『논어』의 “군자가 음식에 먹음에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食無求飽) 거처함에 편안함을 구하지 아니한다(居無求安)”(『論語』, 卷1, ‘學而’)는 말에 근거한 것으로, 기대승이 이미 11세 이전에 공자사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고 있었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위의 구절은 기대승이 9세 때 공부했던 『소학』에 이미 나오는 구절이기 때문에(『小學』, 卷3, ‘明心術之要’), 『논어』를 통해 공자사상에 접근했다고 단정할 일은 아니다.

수학과 육감에 대한 공부는 당시의 일반적인 공부과정과 다른 범주를 보이는 것이어서 검토를 요한다. 조선시대의 교육구상에 의하면, 수학에 편중되거나 수리에 주력하는 공부는 학행을 쌓는 일과 방향을 달리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적실하지 못한 일로 간주되었다(『宣祖實錄』 宣祖 5年 9月 4日, 宣祖 7年 2月 23日). 기대승이 11세에 공부했다는 수학 공부의 수준은 그가 훗날 “나는 산학(算學)을 알지 못하고 다만 세속에서 이른바 행산(行算)을 알 뿐이었으며, 그 후에 또 영산(影算)하는 법을 대략 알 뿐이었다.…… 산법(算法)의 자세한 곡절은 알지 못하므로 막히는 곳이 많이 있다. 산서(算書)를 얻어서 한 번 보지 못한 것이 애석하다”고 했던 말에 비추어 짐작할 수 있다(『高峯集』, 卷3, ‘答先生問目’).

이러한 사정은 육갑에 대한 접근과 이해에 있어서도 별반 차이가 없었다. 다만 육갑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이해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소학에 들어가면 이를 공부하는 기회가 주어졌음이 사실이다. 기대승이 사정전(思政殿)의 석강에 나아가 『소학』을 강론하면서 “『한서』에는 『소학』과 『대학』의 규모의 대략을 논설하였으나 거기서는 상세한 절목(節目)은 보지 못하였다. 이에 ‘예문지(藝文志)’를 상고하니 없어서 계달하지 못하였는데, 나중에 마침 ‘식화지(食貨志)’를 상고하니 과연 그 말이 있었다. 그 내용은 ‘사람은 8세에 소학에 들어가 오방(五方)·육갑(六甲)·서계(書契)의 일을 배워 비로소 부부·장유의 질서를 알게 되고, 15세에 대학에 들어가 선성(先聖)의 예악(禮樂)을 배움으로써 조정 군신의 의의를 알게 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규모의 대략이다”고 말한 것을 보면(『論思錄』 宣祖 1年 3月 25日), 육갑은 소학에 들어가 공부할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에 대한 문제 상황을 지적하면서 “육갑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사마시에 합격한다”(『宣祖修正實錄』 宣祖 19年 10月 1日)거나 “육갑도 모르면서 오언시(五言詩)를 짓는다”(『宣祖實錄』 宣祖 39年 6月 9日)고 말한 것을 보더라도, 육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기대승이 11, 12세 무렵에 읽은 책 가운데 주목할 것은 『대학』과 『중용』이다. 기대승의 경우를 통해 『소학』-『대학』 계제설을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대학』과 『중용』의 연계를 통해 제시되는 탐구 주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학』 공부는 격치성정(格致誠正: 格物·致知·誠意·正心)과 수제치평(修齊治平: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범주가 그려져 있으며, 이는 인격 수양의 계통과 질서를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중용』에서는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기품을 본성이라 하고(天命之謂性) 본성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을 도라 한다(率性之謂道)”는 말에서 시작하

여 “하늘이 하는 일은(上天之載)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無聲無臭)”는 말로 끝나는데, 이는 성정의 오묘함과 천인의 이치를 깊이 궁구하는 틀을 제시한 것이다. 이와 같이 『대학』과 『중용』은 인간, 사회, 자연의 현상과 이치에 대한 철학적 탐구와 자아성찰에 관한 엄밀한 구상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학적 중요성을 지닌다.

기대승이 11세와 18세에 한유(韓愈)의 글을 읽고 공부했다는 사실은 한유와 『맹자』를 연계 짓는 공부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기대승이 “한유의 글은(韓子遺文) 뜻이 깊고 전아하다(典謨與齊)”고 말한 것만 가지고도 한유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高峯集』, 卷2, 「祭鄭校理文」). 그런데 한유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그가 ‘불골표(佛骨表)’와 ‘원도(原道)’를 지어 이단 학문을 배척하는 선봉에 섰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조선왕조실록』에도 한유의 사상과 업적에 대해 자주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그가 유학의 정통성을 지키는 데 앞장섰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기대승은 한유가 살았던 시대에는 천하 사람들이 노장과 불가에 빠져들어 그 폐해가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의 경우보다 심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기대승은 성인(聖人)의 도를 말하면서 “성인의 인(仁)을 배우다가 겸애(兼愛)로 흐른 자가 바로 묵적(墨翟)이요, 성인의 의(義)를 배우다가 편벽되어 위아(爲我)만을 주장한 자가 바로 양주(楊朱)이다. 노자(老子)의 학문은 바로 양주의 원류인데, 장자(莊子)의 학문은 또 양주와 묵적을 합하여 하나로 만든 것이다”고 지적하는 한편 “겸애의 화는 무부(無父)에 이르렀고 위아의 폐단은 무군(無君)에 이르렀으니, 무부와 무군의 도는 금수로 돌아가는데도 그들은 스스로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렇게 기대승이 양주와 묵적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양주와 묵적의 폐해에 노출된 맹자와, 노장과 불가의 폐해에 노출된 한유를 비교하면서, 특히 한유

가 맹자를 본받아 이단 학문을 배척했던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기대승은 한유의 “성인의 도를 보려고 하면 반드시 『맹자』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과 “양주·목적과 노장과 불가의 학문을 따르면서 성인의 도로 가고자 한다면, 마치 끓어진 항구와 막힌 물을 향해 가면서 바다에 이르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배우는 자들이 도를 신중히 선택할 것을 경계하였다(『高峯集』, 卷2, 「求觀聖人之道必自孟子始論」). 이로써 보면, 기대승이 일찍이 공부한 한유의 글은 평생 동안 이단 학문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토대로 작용하였고 성인의 도를 향한 바른 지침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대승이 12세와 18세에 읽고 공부했던 『맹자』는 맹자사상이 기대승의 학문정신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컸는가를 잘 보여준다. 기대승은 맹자사상의 요체에 대해 “맹자……의 학문은 지언(知言)과 양기(養氣)를 위주로 하였고, 그의 도는 성선(性善)과 인의(仁義)를 법으로 삼았다. 양주와 목적의 학설을 배척하고 선성(先聖)의 도를 보호하며 부정한 말을 추방하고 인심을 바로잡는 것으로 자기의 임무로 삼아서, 세상의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공씨(孔氏)를 높이고 인의를 숭상하며 왕도를 귀히 여기고 패도를 천히 여길 줄 알게 하였다”고 집약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성인에게 맹자가 있음은 마치 몸에 눈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며, 육경에 『맹자』가 있음은 마치 그물에 버리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고 강조하였다(『高峯集』, 卷2, 「求觀聖人之道必自孟子始論」). 기대승이 일찍이 청소년기에 한유의 글과 『맹자』를 묶어서 공부하는 방안을 취했던 것은 이렇게 일생동안 맹자사상의 학문적 가치와 중요성을 천양하는 기반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의 독서목록 가운데 『주역』이 갖는 공부론적 가치는 각별하다. 기대승은 15세 이후 『주역』 공부에 몰두했는데, 이는 그의 학문적 지향과 인생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주역』에서는 우주와 인간이 하나의 조화로운 통일체로 구성되는 거대한 생명활동의 장을 논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모든 존재는 통합적 전체로서 상호 관련되는 유기적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주역』에서는 천·지·인의 삼극(三極)이 ‘건곤(乾坤)’ 혹은 ‘음양(陰陽)’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명활동(운동, 변화)이 생겨난다는 전제를 통해 사물의 변화와 다양성을 이해하는 구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역』은 “덕에 들어가는 문(入德之門)”으로 여겨지며 “머지않아 돌아온다(不遠復)”는 자기 반성의 가르침으로 다가온다(『心經』, 卷1, 「不遠復章」).

기대승은 17세에 『전한서』, 『후한서』, 『여지승람』 등을 공부했는데, 무엇보다도 『여지승람』이 독서목록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국토와 지역 산물에 관한 정보를 담은 『여지승람』의 편찬에는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에 대해 점필재 김종직(佔畢齋 金宗直)은 “신들이 『여지승람』을 편찬할 적에 여러 도 여러 고을 산천의 향배를 그 고을 사람들에게 자세히 물어서 기록하였습시다마는, 가령 동북 사이에 있는 산인 것을 혹자는 동쪽에 있다 하고 혹자는 북쪽에 있다고 하였으며, 큰 산인 경우에는 수십 리에 뻗쳐 있으므로 동쪽의 것인지 북쪽의 것인지를 지적하여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도 이리저리 꺾여 돌며 흐르는 것을 혹자는 남쪽으로 흐른다고 하고 혹자는 동쪽으로 흐른다고 하였으나, 나중에 큰 물로 들어가서는 같았습니다. 땅의 거리도 혹자는 10리라 하고 혹자는 7, 8리라 하였으나, 모두 자로 헤아려본 것이 아니어서 확실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또 토산물도 그 고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고장에 맡겨서 공물로 삼을까 두려워하여 숨기고 말하지 않았으니, 이는 알기가 어려운 일입니다”라고 말했다(『成宗實錄』 成宗 18年 4月 22日). 『여지승람』은 비록 정확성을 빚나간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나라의 형세와 지역 산물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문헌임에 틀림없

다. 『여지승람』이 기대승의 청소년기 독서과정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그가 우리 국토의 형세는 물론 국지적인 삶의 일상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크게 드러냈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기대승은 스스로가 독서의 단계와 과정을 세워 공부하고, 이를 게을리 하거나 늦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반성과 평가는 매우 엄정했다. 자신의 삶에 대해 질책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학문의 도정을 이탈하지 않기 위한 자기 성찰의 원칙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기대승이 청소년기, 특히 15세를 전후로 한 시기에 학문에 임했던 태도와 이에 대한 반성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40년(14세)부터 1541년(15세)까지 사이의 8개월 동안과 1541년(15세)부터 1542년(16세)까지 사이의 10개월 동안을 합해서 계산하면 모두 18개월이요 햇수로 따지면 1년 반 남짓 되는데 그 동안 뜻이 해이해지고 성질이 게을러져서 글을 입으로 읊지도 않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않은 시간이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비록 수시로 느껴 분발하여 기세를 부려 보기도 했지만 역시 어쩔 수 없었다. 대체로 아버지는 내가 조금 아는 것이 있다고 하여 항상 강을 베푸는 일에 엄하지 않으셨고, 훈계하고 권장하는 일도 소홀히 하시었으며, 때로 방탕하게 노니는 일이 있어도 심히 책망하지 않으셨다. 나는 안일을 내내 누릴 수 있는 것이라 여겼다. 이 때문에 나이를 먹을수록 학문은 더욱 멀어지고, 해가 오랏수록 뜻은 더욱 해이해져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보잘 것이 없으니 한탄스럽기 그지없다(『高峯續集』, 卷2, 「自警說」).

위의 기록에 의하면, 기대승은 15세를 넘기면서 학문에 대한 설계 및 전망에 중대한 변화의 계기를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변화는 발상의 특이함으로부터 나왔다가보다는 교육에 대한 지극히 일상적이고도 상식적인 접근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기대승이 15세를 기점으로 위기지학(爲己之學)을 향한 다짐을 공고히 했음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5세(1541년) : 아버지의 훈계를 손수 기록하여 첩(帖)을 만들어 스스로 면려하면서 이르기 “나는 어려서부터 정훈(庭訓)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이론 바가 있음직한데도 기질이 용렬하여 어리석기가 처음과 같으니 이를 생각하면 통탄스럽다. 지난날의 잘못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힘써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버지께서 일찍이 ‘소씨(邵氏 : 邵伯溫)는 문견록(聞見錄)을 남겼다. 배우는 자들은 모름지기 차기(箴記)를 두어 잊어버릴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에 나는 들은 것을 기록하여 아침저녁으로 완미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위기지학(爲己之學)에 전념하였고 세속에서 익히는 과문(科臼)에는 뜻을 두지 않았다(『高峯年譜』 1541年).

② 일찍이 아버지의 훈계를 손수 기록하여 조그만 책자로 만들어 스스로 열람하면서 이르기 “나는 어려서부터 정훈(庭訓)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꽤 진척된 바가 있음직한데도 기질이 용렬하여 거칠기가 처음과 같으니 이를 생각하면 항상 스스로 두려워진다. 아버지께서 일찍이 ‘옛사람은 문견록(聞見錄)을 남겼다. 배우는 자들은 모름지기 차기(箴記)를 두어 잊어버릴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위기지학(爲己之學)에 전념하였고 세속에서 익히는 과문(科臼)에는 뜻을 두지 않았다(『高峯集』 附錄卷1, 「行狀」).

기대승은 소백온의 예에 따라 부친의 가르침을 기록으로 남겨 이를 삶의 지침으로 삼고자 하였다. 소백온의 예란, 소백온이 남겼다는 ‘문견록’을 일컫는다. ‘문견록’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심경』에 “소백온이 ‘마음 쓰는 법이 가장 어려운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라고 물으니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경(敬)’이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경은 백 가지 사특함을 이긴다(敬勝百邪)’고 하였다”(『心經』, 卷3, 「牛山之木章」)는 말이 나오는데, 이 대목은 ‘문견록’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 기대승이 부친의 가르침을 받아적어 삶의 지침으로 삼았던 10개 조항 가운데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高峯續集』, 卷2, 「過庭記訓」).

나는 어려서부터 정훈(庭訓)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이론 바가 있음직한데도 기질이 낮고 용렬하여 어리석기가 처음과 같으니 이를 생각하면 통탄스럽다. 지난날의 잘못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힘써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버지께서 일찍이 “소씨(邵氏)는 문견록(聞見錄)을 남겼다. 배우는 자들은 모름지기 차기(劓記)를 두어 잊어버릴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에 나는 들은 것을 기록하여 아침 저녁으로 완미하고자 한다. 아버지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다.

.....

② 내가 너희들에게 학문에 힘쓰도록 한 것이 어찌 작록을 바라서 그러겠느냐. 바로 너희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여 다행히 조상을 욕되지 않게 하고자 해서일 뿐이다.

.....

④ 나는 너희들이 연못에 가서 고기 낚고 산에 가서 땔나무하고 거친 밭을 매고 가꾸어 아버이를 섬기도록 하려는데, 남이야 뭐라고 하든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⑤ 내가 어렸을 적에 집이 가난하여 어머니께서 몹시 고생하시면서 나를 길러주셨다. 그래서 매양 어서 입신양명하여 이 망극한 은혜를 보답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뜻을 이루기도 전에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으므로 이것이 나의 평생에 걸친 통한이 되어버렸다. 너희들은 지금 배불리 먹고 따뜻이 입고 살면서 왜 학문에 힘쓰지 않느냐. 나와 자경(子敬 : 服齋 奇遵)은 우애가 각별하여 항상 한 이불을 같이 덮고 누워서 “우리 형제가 모름지기 세상의 한 구석을 맡아야 할 것이다”고 했었다.

.....

⑧ 지금 세상에는 학문을 강구하지 않아 한때는 서로 좋게 지냈다가도 뒤에는 도리어 곤욕을 보이곤 하니 말을 하자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부디 함부로 친구를 사귀지 말라. 요컨대 친구는 없을 수 없지만 또한 사귀를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

⑨ 벼슬길(仕道)의 풍파는 매우 두려운 것이다. 자기의 뜻을 행하기도 전에 재앙이 이미 따르게 되는 것이니, 다만 잘 헤아려서 오가는 것이 좋으나 그것도 은거(高臥)하는 것만은 못하다.

⑩ 주자는 벼슬한 날짜가 겨우 40여 일밖에 되지 않았으니, 배우는 사람들은 또한 이 뜻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진실로 자기의 뜻을 행하려

면 일개 현(縣)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이상은 부모의 자식을 향한 가르침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부모에 대한 효도나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하거나, 친구 사귀는 일의 중요성을 논급하거나,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을 풍파에 비유하면서 재앙에 빠지지 말 것을 강조한 것은 모두 전통사회의 정훈(庭訓)이 지향하는 바를 순수한 원형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Ⅲ. 훈몽지사(訓蒙之師)와 전도지사(傳道之師)

자식을 바뀐 가르쳤던 유교사회의 전통에 비추어볼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소년기에는 부모와 스승의 가르침이 함께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다. 기대승의 청소년기도 부친의 가르침과 스승의 가르침을 받들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데 남다른 각오와 드러남이 있었고, 이는 인격 형성의 근간으로 작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기대승의 행적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는 기암 정홍명(畸菴 鄭弘溟)과 계곡 장유(谿谷 張維)의 기록을 보면 기대승의 청소년 시절 스승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① 정홍명이 말하는 기대승의 스승: 선생은 천품이 뛰어나서 일찍부터 학문에 뜻을 두었고 궁벽한 시골구석에 있어 사승(師承)관계도 없었지만, 능히 스스로 분발하여 경적(經籍)에 마음을 깊이 쏟아 오묘한 뜻을 연구하여 찾되, 항상 거기에 급급하여 완전히 알지 않으면 그만 두지 않았다(『高峯集』, 附錄卷1, 「行狀」).

② 장유가 말하는 기대승의 스승: 선생은 빼어난 재주를 타고난 데다가

견문이 넓고 학문에 힘써 아니 본 책이 없었다. 처음에는 하서 김선생(河西 金先生)에게 종유(從遊)하다가, 32세에 비로소 퇴도(退陶 : 퇴계 이황)를 배알하고 스스로 제자의 예를 갖추었다. 퇴도는 항상 스승 자리를 양보하였으며 은미한 말과 깊은 뜻을 만나면 선생에게 질문 하곤 하였는데, 퇴도의 다른 문인들은 여기에 끼지 못하였다(『高峯集』, 「序」).

위의 기술만 가지고 보면 기대승은 일찍이 학문에 뜻을 두었지만, 궁벽한 시골구석에 살았던 관계로 청소년기에 특별히 사사할 스승이 없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하서 김인후(河西 金麟厚 : 1510~1560)에게 종유했다는 것도 그의 나이 32세 때의 일을 일컫는 것으로 청소년기의 사승관계와는 관련이 없다.

하지만 기대승 스스로는 청소년기에 용산 정즐(龍山 鄭鵬 : 1495~1554)을 스승으로 받들고 그 가르침을 따랐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기대승이 정즐을 스승으로 받들게 된 계기와 가르침을 받은 바에 대해 말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옛날 내가 어릴 적에 고루하고 몽매해서 학문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다. 어리석고 미련했지만 아버지가 명을 내려 공(용산 정즐)에게 귀의하였다. 공은 나를 비루하다고 여기지 않고 강론을 그치지 않았으니, 크고 작은 일을 나열하고 같고 다른 이치를 분석해 주셨다. 여러 분분한 일들을 중(中)으로써 요약해 주셨다. 나를 가르쳐주신 은혜와 나를 키워주신 공로가 이제는 끝났으니 저 하늘을 우러러볼 뿐이다.…… 내가 공의 문하에 나간 지 이제 십 년이 되었다. 외람되이 알아주시고 사랑해주시며 시종 간격이 없었다. 나에게 원대함을 기대하시기를 마치 목마른 듯 굶주린 듯이 하셨다. 나는 아무 것도 몰랐지만 공은 바로 나의 스승이 되어주셨다. 나는 공의 서재에 기거하며 조석으로 자리를 지켰다. 나의 완악하고 노둔한 자질을 항상 부지런히 깨우쳐주시고 시를 읊으며 문답을 하여 끊임없이 서로 상고하였다. 한유(韓愈)의 글은 뜻이 깊고 전아해서 나는 그 글을 읽으면서 황홀하여 방향을 몰랐으나 공은 일일이 해석하여 그 단서를 열어주셨다. 그리하여 나는 문장에 대하여 비로소 그 뿌리를 알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서전』을 배웠는데 떠돌이 오솔길을

막듯이 마음이 막혔다. 그런 나에게 글을 따라 뜻을 설명하시기를 마치 도공이 진흙으로 그릇을 빚듯 해주셨다(『高峯集』, 卷2, 「祭鄭校理文」).

기대승은 청소년기에 용산 정절을 스승으로 받들고 스승의 서재에 기거하면서 글공부를 하였으며, 스승 정절은 마치 도공이 그릇의 형체를 바로잡아주듯이 제자 기대승에게 가르침을 베풀었다. 기대승은 스승 정절의 문하에서 공부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 바 있다.

① 15세(1541년): 늦은 봄에 모두 1백 30구가 되는 ‘서경부(西京賦)’를 지었다. 용산 선생은 이 글을 보고 평하기를 “그 글을 읽어보면 그 사람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니, 마땅히 그 명성이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이를 것이다. 생각이 멀고 기가 장대하며 말이 고상하고 문장이 통창하다. 비록 간간이 설고 거친 데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다만 작은 흠일 뿐이다. 조금만 더 진취하면 문득 옛 작자(作者)의 경지에 이를 것인데, 그 밖의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셨다(『高峯續集』, 卷2, 「自警說」).

② 18세(1544년): 목사 송순(宋純)이 유생 가운데 더 배우기를 청한 자들을 선발하여 글을 강송(講誦)하도록 하고, 반드시 그 강송하기 시작할 때를 기록하여 기간이 오래 되면 곧 학업 성취도를 심사하곤 하였다. 나는 이를 계기로 『맹자』를 읽어 3월 그믐에 끝내고 한유의 글을 읽다가 4월 보름에는 용산 선생을 찾아뵈었다. 5월에는 장차 도회(都會)에 가려고 선생을 뵈었더니 선생은 ‘민암부(民岳賦)’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다. 부를 완성하자 선생은 몇 번이고 칭찬을 하셨다. 한유의 글은 제문만을 읽고 돌아오니 5월도 이미 그믐이 되었다. 6월에는 도회에 갔다가 그믐에 집으로 돌아왔다. 초가을에는 재차 용산 선생께 가서 또 한유의 글을 읽다가 보름 뒤에 집으로 돌아왔다. 이 달부터 8월말까지는 더위에 지쳐 마냥 누워서 책상을 마주하고 있을 뿐이었다. 9월초에는 용산 선생께 가서 『문선』을 강독하다가 열흘 경에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초 하루에 또 용산 선생께 가서 『상서(商書)』의 대문(大文)을 읽다가 1, 2권을 못다 읽고 돌아오니 그 때가 16일이었다. 세월이 워낙 빨라 또 세모를 맞게 되었다. 머리 돌려 천지를 바라보매 해는 곧 지려고 하니 다

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高峯續集』, 卷2, 「自警說」).

이상으로 보아 기대승의 청소년기에 가르침을 베푼 스승으로 용산 정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정홍명과 장유의 기록은 애초부터 기대승의 초년 스승인 용산 정줄을 부각시키는 데 실패했거나 이를 알고도 굳이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을 공산이 크다. 어느 쪽이든 이는 결과적으로 기대승의 초년 스승으로 용산 정줄이 있었다는 사실을 가리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정홍명과 장유의 기록처럼, 정줄이 기대승의 스승이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단적인 예로는 “기암 정홍명은 그의 ‘고봉행장’에서……고봉에게는 사승을 댈 스승이 없었음을 밝힌 바 있지만……고봉에게 과연 집지의 예를 드린 스승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저 문의 또는 토론의 대상자로서의 선배만이 존재했는지의 여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대 의안으로 존속되어오고 있음을 본다”(이을호, 1973 : 65-66)는 기술을 들 수 있다.

정줄이 기대승의 스승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기술한 위의 글과는 달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긍정하는 기술과 부정하는 기술이 양립하는 경우도 있다. 먼저 기대승의 스승이 정줄이라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예로는 “고봉은 용산 선생을 만나고부터는 본격적인 문장 수업에 들어가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려는 의지가 불타기 시작하였다”(오종일, 1992 : 19)는 기술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기대승의 스승으로 정줄을 부각시키는 일에 대해 일종의 거부감을 보이는 예로는 “마치 고봉의 가장 큰 스승이 용산이라는 식으로 클로즈업시키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퇴계를 비롯한 당시 지식인들은 용산보다 적은 영향을 주었다는 말인가. 고봉의 학문적 맥이 마치 용산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 것은 재고해봐야 할 일이다”(정병련, 1998 : 143)는 기술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서로 다른 시각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는 유교적 전통에 유의한다면 충돌 없이 해결될 문제이다. 청소년기를 지나서도 스승을 삼아 받들고 섬기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감수성이 예민하고 삶에 대한 높은 이상을 구가하는 청소년기에 영향을 끼친 스승이 누구였는가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기대승의 경우, 분명 청소년기의 학문적 성장 과정에 영향을 끼친 스승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논외로 하면서 하서 김인후나 퇴계 이황 등 당대의 대유(大儒)·유종(儒宗)으로 지목되는 인물만을 스승의 자리에 올리려는 경향은 중앙과 주변의 이분법으로 사승관계를 설정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기대승의 청소년기 교육을 담당했던 스승은 용산 정절이었으며, 기대승이 스승에 대한 ‘제문’에서 회상했던 바대로 정절의 영향은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절은 기대승이 28세 때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기대승이 김인후와 이황을 만나 스승의 예로 받은 것은 그의 나이 32세 때의 일이다. 기대승이 이황을 스승으로 받들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기대승의 스승으로 지목될 수 있는 인물에 대해 “퇴계를 비롯한 당시 지식인들”(정병련, 1998 : 143)이라고 했을 때, 그 지식인에 드는 대표적인 인물은 김인후를 상정한 것임이 분명하다. 기대승이 김인후를 중유했음에 대해서는 “은미한 말은 장차 누가 그 단서를 찾아내며(微言將誰使之繹), 후학들은 장차 누가 깨닫게 해주겠습니까(後學將誰使之覺耶).…… 중유하던 즐거움과(從遊之樂) 사모하던 생각도(慕用之懷) 이제는 다 끝나고 말았습니다(已矣已矣)”라는 술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高峯續集』, 卷2, 「祭河西金先生文」).

청소년기에 감화를 주었던 기대승의 스승은 정절이었고, 관직에 진출한 이후에는 이황을 스승의 예로 받들었다. 학문적 성장과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작용양상에 따라 스승의 유형은 동몽을 가르치는 스승인 ‘훈몽지사(訓蒙之師)’와 도학을 전수하는 스승인 ‘전

도지사(傳道之師)’로 나뉜다(박균섭, 1990 :85). 기대승의 초년 스승 정줄이 ‘동몽지사’에 속하는지 아니면 ‘전도지사’에 속하는지 숙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기대승이 정줄에 대해 “나를 가르쳐주신 은혜(教我之恩)”와 “나를 키워주신 공로(生我之功)”를 갖는다고 말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 나(我未有知)”를 위해 “공은 나의 스승이 되어주셨다(惟公我師)”고 말한 것에 비추어볼 때(『高峯集』, 卷2, 「祭鄭校理文」), 정줄은 ‘전도지사’보다는 ‘훈몽지사’의 성격이 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기대승이 32세 때 스승으로 받은 이황은 기대승의 ‘전도지사’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IV. 과거공부(科擧工夫)와 위기지학(爲己之學)

기대승이 청소년기에 연마하고 탐구했던 지식과 학문이 자아정체성 확립과 윤리의식 함양에 어떠한 힘으로 작용했는가를 묻는 일은 교육문제 논의를 위한 본질적인 질문이다. 기대승의 지식과 학문에 대한 기본 가정을 살피기 위해 일대기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대승은…… 막내아버지(季父) 응교(應敎) 신(臣) 기준(奇遵) 이 기묘팔현(己卯八賢) 중 한 사람으로 화를 입었기 때문에 벼슬길에는 뜻을 두지 않았다. 1545년(명종 즉위년)인 19세 때에 사림의 화가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문을 닫고 눈물을 흘렸으며 더욱더 세상에 진출할 뜻이 없어 거자(擧子)의 업을 하찮게 보고 위기지학(爲己之學)에 종사하여 노산(蘆山) 속에 집을 짓고서 부지런히 글을 읽기를 소옹(邵雍)이 백원(百源)에서 한 것처럼 한 지가 10여 년이었다. 성정(性情)의 오묘함에 흠뻑 젖어 들고 천인(天人)의 이치를 깊이 궁구하여 『대학』의 ‘격치성정(格致誠正)’부터 ‘수제치평(修齊治平)’까지(『대학』의 8조목), 『중용』의 ‘천명술성(天命

率性)’부터 ‘무성무취(無聲無臭)’까지(『중용』의 처음과 마지막 글)를 대강령으로 삼고서 세밀히 분석하였으니, 이는 그 힘을 들인 것이 정밀하고 철저하여 그런 것이었다. 1558년(명종 13년)에 비로소 벼슬하여 조정

에 진출하였다(『高峯別集』, 附錄卷2, 「請享疏」).

기대승은 지식과 학문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는 입장이었지만 과거공부를 통한 정치참여를 거부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참여와 은거 사이의 선택과 결단 문제에 대해 『주역』에서는 “군자는 소인을 멀리하라(君子以遠小人). 타인을 저주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라(不惡而嚴)”는 처방을 내리고 있다(『周易』 卷2, 「遯」). 이렇게 정치현실에 대한 고려를 통해 참여와 은거라는 흑과 백을 가리는 사회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대승이 과거공부를 통해 정치참여의 의사를 드러냈다고 해서, 그것이 유교적 표준을 벗어난 선택이었다고 단정할 일은 아니다. 기대승이 과거에 응시한 사실을 적시하면, 20세에 향시(鄉試) 진사과(進士科), 23세에 사마시(司馬試) 양시(兩試), 25세에 알성시(謁聖試), 28세에 동당시(東堂試) 향시(鄉試), 32세에 식년문과(式年文科) 을과(乙科)에 응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高峯年譜』 1546年, 1549年, 1551年, 1554年, 1558年). 위의 과거 응시 행적 가운데 기대승이 25세 때 알성시에 응시했던 사실은 조선시대 과거 부정·물의를 여러 양상 가운데 하나를 보여주는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대승은 알성시에 응시하여 성적이 좋았지만 주최 측에서 일부러 낙방시켰다는 지적이 있다. 기대승 측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이에 관한 사실을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23세(1549년)에는 사마시 양시(생원시·진사시)에 모두 2등을 하였다. 25세(1551년)에는 알성시에 급제할 수 있었는데 윤원형이 그의 이름을 꺼려 하등의 점수를 주어 낙방하였다(『高峯年譜』 1549年, 1551年).
- ② 23세(1549년)에는 처음으로 응시하여 생원과 진사 두 방(榜)에 다 합격함으로써 약관의 나이에 벌써 이름이 사림에 드러났다. 문장이 시현

장에서 상대가 없을 정도였으므로 윤원형이 그를 꺼린 나머지 공의 시험지가 높은 등급에 들어갈 줄 알고 고의로 떨어뜨려 버렸다. 그러나 공은 역시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高峯集』, 附錄卷1, 「諡狀」).

윤원형은 사람과의 반대세력이었기 때문에, 기묘명현의 후예를 등용하지 않으려는 그의 음모에 의해 기대승이 알성사에서 낙방했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이에 관한 사실을 지지·방증할 만한 기록을 찾을 수는 없다. 다만 1551년(명종 6년)의 윤원형에 대한 사론(史論)에 “윤원형이 찬조하고 인도하여 성덕에 누가 되게 한 일”이 많다고 하면서 “지난 날 국사를 그르친 자도 원형이고 뒤에 임금에게 해독을 끼친 자도 역시 원형이다. 인주가 소인을 등용하면 그 해독이 이와 같이 심하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 나온다(『明宗實錄』 明宗 1551年 8月 24日). 당시에 윤원형의 전횡이 극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에 의해 과거 부정이 저질러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기대승은 기묘명현의 후예라는 사실로 정치적 피해를 입었고, 이는 사회정의에 반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이어져, 그는 평생을 권신들의 전횡에 철저히 항거하는 한편, 정치·사회적 이상에 충실하려는 사람의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기대승은 평생을 정사와 문장은 모두 말단적인 일(政事文章皆是末)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예나 지금이나 바람직한 인간유형은 덕행을 갖춘 사람(古今唯說德行人)이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었다(『高峯續集』, 卷1, 「勸學小詩」).

기대승이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간 후에 겪은 심적 갈등과 고뇌에 대해 이황과 주고받은 편지글을 통해서도 지식과 학문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실천을 향한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기대승 : 과거에 급제한 뒤 접대하는 일이 자못 괴롭고 번거로운데 병까

지 들어서 정신은 혼미하고 몸은 지쳐, 전에 배운 것은 아득하고 새로 배운 것은 거칩니다. 그래서 도학에 정진하고자 하는 평소의 뜻을 아주 저버리게 될까 매우 두렵고, 옛사람에게 미치기 어려움을 깊이 한탄합니다. 그러나 기질이 박약하여 뜻을 굳게 세울 수 없는 소치로 세속의 물결에 파도처럼 밀리어 장차 부침하는 사람이 되어서 옛 것을 사모하고 도를 행하려던 평소의 마음이 세속에 휩쓸리고 이익을 따르는 몸으로 전락하였으니 통탄스럽습니다(『兩先生往復書』, 卷1, 「上退溪先生」).

이황: 언제나 빼앗을 수 없는 의지와 꺾을 수 없는 기개와 속일 수 없는 식견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하여 학문의 힘을 나날이 담금질한 뒤에야 발꿈치가 단단히 땅에 붙어서, 세속의 명예나 이익 그리고 위세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처음의 뜻이 바뀌어 세속과 화합하고 용납되기를 취하며 도를 배반하고 이익을 따르는 것으로 좋은 계획이라 여기지 않을 자가 드물 것입니다(『兩先生往復書』, 卷1, 「答奇正字明彦書」).

당시 청소년들이 처한 교육 관련 문제 중의 하나는 과거에 대해, 과거를 향해 어떠한 견해와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에 있었다. 자기성찰과 인격함양을 위한 공부인 위기지학(爲己之學)과 과거공부를 통해 관직에 나아가는 일은 양립 가능하며, 이는 지식과 학문에 대한 잘못된 가정이 아니라는 게 전통사회의 교육문제에 대한 인식 일반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이념적 지향을 견지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대부분의 경우 생각이 흔들거리거나 바뀌어서 자기 성장과 발전을 기하지 못하고 득실만을 중히 여기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쉬었다. 기대승이 말한 바와 같이,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선다고 하는 것은 자칫 전에 배운 것을 아득하게 만들고, 새로 배운 것을 거칠게 하며, 도학에 정진하고자 하는 평소의 뜻을 저버리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옛 사람에게 미친다는 궁극의 목표를 달성치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이황도 기대승에게 학문의 힘을 나날이 담금질할 것과, 세속의 명예나 이익 그리고 위세에 넘어가지 말 것을

당부하였던 것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기대승이 부친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의 중심 주제는 과거공부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것이었다(『高峯續集』, 卷2, 「過庭記訓」).

- ① 내가 너희들에게 학문에 힘쓰도록 한 것이 어찌 작록을 바라서 그러겠느냐. 바로 너희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여 다행히 조상을 욕되지 않게 하고자 해서일 뿐이다.
- ② 벼슬길(仕道)의 풍파는 매우 두려운 것이다. 자기의 뜻을 행하기도 전에 재앙이 이미 따르게 되는 것이니, 다만 잘 헤아려서 오가는 것이 좋으나 그것도 은거(高臥)하는 것만은 못하다.
- ③ 주자는 벼슬한 날짜가 겨우 40여 일밖에 되지 않았으니, 배우는 사람들은 또한 이 뜻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진실로 자기의 뜻을 행하려면 일개 현(縣)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기대승이 청소년기에 받은 가르침과 스스로 다진 각오는 과거공부가 부귀와 권세를 누리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회일반의 과거공부에 관한 인식은, 이를 부귀와 권세를 위한 수단쯤으로 여기는 편향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만일 누군가가 과거에 응시하지 않게 되면, 이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곡해해서 받아들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기대승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가 과거에 응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세간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오갔다.

과거공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왜곡되어있고, 이에 대한 모종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대승은 자신의 과거시험을 대하는 입장을 해명하기에 이르렀다. 기대승은 자신이 과거에 응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풀고자 한 배경에 대해 “나는 집안에 연고가 많아서 봄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과실로 여겨 시비하는 말이 길거리에 가득하다. 나는 스스로 그것을 해명할 수가 없어 이 세 가지 해명을 통해 나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라고 했다(『高峯續集』, 卷2, 「三解」). 과거에 응시하지 않은 기대승을 두고 사람들 사이에는 그가 “뜻을 고상하게 하기 위해 응시하지 않은 것이다”거나 “이름값을 높이기 위해 응시하지 않은 것이다”는 등의 말이 오갔다. 기대승은 자신이 왜 봄에 열린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겨울을 지나고 봄을 지나노라면 뒤주의 곡식이 떨어져가고 서쪽 밭, 동쪽 눈에 농사일이 시작되는데, 과거에 응시하는 것이 비록 중하지만 이 생활하는 도리를 어찌하겠는가. 또 사람들이 과거에 응시하는 것이 어찌 집이 가난하고 부모가 연로하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집이 가난하고 부모가 연로하시기 때문에 녹봉을 받기 위해 벼슬하는 것은 또한 옛사람의 도이다. 그러나 사마시(司馬之舉)의 경우는 빈 이름만 영화로울 뿐인데 거기에 드는 비용은 적지 않으니, 비록 합격을 한다 하더라도 연로하신 부모의 얼굴 한 번 펴드리는데 불과할 뿐이요 합격을 하지 못하면 반드시 상실감을 갖게 된다. 반드시 상실감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집은 텅 비고 부엌은 썰렁하여 아침저녁 끼니조차도 걱정하게 될 것이다. 어찌 꼭 얻을 것을 보장할 수 없는 영광 때문에 반드시 닥칠 걱정거리를 만들 수 있겠는가…… 짧은 재주와 둔한 자질을 몰아붙여 길거리에서 분주하다면 이는 가난한 집, 연로하신 부모의 걱정이 되기에 알맞을 뿐, 어찌 가난한 집 연로하신 부모의 영광이 될 수 있겠는가…… 지금은 이치로 보아도 옳지 않고, 일로 보아도 타당하지 않고, 시기로 보아도 적합하지 않은데 어찌 감히 자신의 사욕을 멋대로 부려 일에 임하는 경계를 범해서 스스로 수많은 선비들 밑에 깔 수 있겠는가(『高峯續集』, 卷2, 「跡解」).

기대승의 고민은 뒤주의 곡식이 떨어져가고 농사일이 시작되는 데도 과연 과거공부에 매달려야 할 것인가에 있었다. 이는 과거 응시자들이라면 응당 겪게 되는 고민거리이기도 했다. 과거시험이 농사철과 겹치게 되는 경우에 대한 문제로는 “과거날짜를 점점 뒤로 물리면 농시(農時)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방의

가난한 유생들이 양식을 싸가지고 오느라 분주하게 될 것이고, 이 때문에 농시를 잃어 아사(餓死)를 면치 못할 것이다”는 지적을 들 수 있다(『中宗實錄』 中宗 37年 12月 10日). 그래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은 과거시험에 임하는 쪽이었다. 농시를 놓쳐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과거시험은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집착의 대상이었다(이원재, 2001 : 15-17). 하지만 기대승은 농시와 과거날짜가 겹칠 때에 과거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마시를 예로 들어 말하자면, 시험에 합격한다 해도 연로하신 부모의 얼굴 한 번 펴드리는데 불과할 뿐이며, 합격하지 못하면 마음이 크게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집은 텅 비고 부엌은 썰렁하여 아침저녁 끼니마저 걱정할 것이기 때문에 과거시험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대승은 꼭 얻을 것을 보장할 수 없는 영광 때문에 반드시 닦칠 걱정거리를 만들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처럼 보아도 옳지 않고, 일로 보아도 타당하지 않고, 시기로 보아도 적합하지 않은데도 과거시험에 집착하는 것은 탐욕을 드러내는 일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자신이 과거에 응하지 않은 일을 놓고 사람들 사이에 온갖 구설이 오가는 것에 대해, 기대승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자신의 입장을 이해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했다.

대체로 선과 악은 자신에게서 드러나고 횡방과 칭찬은 남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니, 자신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다할 수가 있지만 남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다할 수 있는 것은 의당 스스로 힘써야겠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상대에게 맡겨둘 뿐이다. 내가 또 어찌하겠는가. 나는 여기에서 횡방과 칭찬은 걱정할 것이 못된다는 것을 알았다(『高峯續集』, 卷2, 「意解」).

기대승은 과거공부에 관한 세간의 왜곡된 견해와 잘못된 주장

에 대해 해명하는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는 과거에 대한 세속적 관심과 지향이 아닌 인격 함양을 위한 공부, 성인을 향한 공부에 대해 말하고자 하였다. 기대승은 학문 탐구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과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성인의 일을 나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는 성인자기론(聖人自期論)의 천명에 해당한다.

성인(聖人)이 그 본성을 온전히 하는 것은 정(靜)에 근본한 것이요, 중인(衆人)이 그 본성을 해치는 것은 동(動)에 실패한 것이니, 본성을 온전히 하고 본성을 해치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경(敬)과 사(肆)의 차이에 불과할 뿐이며 성(誠)과 위(僞)의 차이에 불과할 뿐이다. 대체로 경(敬)이란 마음을 한군데 집중하여 잡념을 없애는 것(住一無適)을 일컫는 것이며, 성(誠)이란 진실되고 거짓이 없음(眞實無妄)을 일컫는 것이다. 성(誠)은 천(天)의 도이고 경(敬)은 성(聖)의 도이니, 진실로 경(敬)으로써 마음을 곧게 하고 성(誠)으로써 그것을 이룬다면 성인의 도를 또한 배울 수 있다. 그렇다면 소위 경(敬)과 성(誠)은 또한 어떻게 힘을 써야 할 것인가. 자세히 생각하고 밝게 분별하여(審思明辨) 스스로 힘써 쉬지 않는 것은(自強不息者) 성을 생각하는 실상이요(思誠之實), 몸가짐을 가지런히 엄숙하게 하고(整齊嚴肅) 조심스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것은(戰兢自持者) 경을 위주로 하는 실상이다(主敬之實也). 배우는 자가 진실로 여기에 힘쓴다면 천지·만물·중묘(衆妙)의 도를 마음에 얻을 수 있고, 성인의 일을 내가 또한 배울 수 있다. 어찌 고금과 피차의 간격이 있겠는가. 세상의 군자들은 이것을 생각할 일이다(『高峯續集』, 卷2, 「理解」).

과거공부를 둘러싼 세간의 왜곡되고 굴절된 인식은 자기성찰과 인격함양을 위한 학문, 성인을 향한 학문과는 접점을 찾기 힘든 격차와 괴리를 보이는 것이었다. 이러한 현실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기대승은 학문의 탐구 주제를 유학의 본질과 성리학적 논의구조 안에서 찾고자 노력하였다. 이렇게 기대승의 지식과 학문에 대한 가정은 성리학의 세계 인식에 기반을 두면서 교육현실의 여러 문제현상을 극복·초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V. 맺음말

고봉 기대승의 청소년기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당시 지식과 학문 그리고 교육에 관한 중심 주제가 무엇이었으며, 이는 오늘의 청소년문제 이해 체계 및 논점의 구성 과정에 어떠한 조화의 틀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대승은 부친과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본받는 과정에서 청소년기의 인격을 바르게 형성해 나갈 수 있었다. 청소년기의 인격 형성에 작용하는 배경요소에 주목하자면, 가정에서 주어지는 부모의 가르침은 절대적 중요성을 갖는다. 전통사회의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 과정에서 유의할 일은 청소년문화를 미성숙, 비행, 저항의 속성을 띠는 문화로 파악하려 드는 근대적 기획을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전통사회의 청소년에게 있어서 삶의 이상에 관한 성찰과 논의는 단순한 생존의 문제를 넘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핵심 주제로 삼는 것이었다.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가치의 내면화를 표준으로 삼는 교육적 구상은 이기심과 경쟁심을 가치의 정점으로 삼는 오늘날의 비정상적인 교육열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었다.

한국 교육문제의 많은 부분은 학부모 집단의 비정상적인 교육열에서 비롯되고 있다. 자식에게 향하는 정서적 집착은 부모-자녀간의 왜곡된 유대관계로 나타나며, 이로 인한 잘못된 지향이 교육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왜 오늘날의 교육이,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회적 고립의 속성과 비인간화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청소년을 현재의 욕구에 머물도록 하는 지나친 관대함 역시 청소년에게 행동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고 주체적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일을 가로막는다. 전통적 시간관념으로 바라보는 청소년기는 일정한 물리적 정량으로 주어지는 시간의 집적상태가 아니었다. 전통사회의 청소년기는 현실의

극복과 미래에 대한 주체적 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유교교육의 이상에 입각하여 철저하게 규정되고 해석되었다. 기대승은 청소년기를 일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로 파악하고, 학문에 대한 이상을 갖고 나아갈 목표를 세워 이를 실천하는 데 남다른 면모를 보였다. 그에게 있어서 지식과 학문은 교육의 내재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는 실질적 의미를 갖는 것이었으며, 이는 관념적 선언이 아닌 구체적 대안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교육열과 학벌사회로 치닫는 우리의 교육현실이 왜 잘못이며, 잘못의 기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은 앞으로도 유효하다. 물질 가치가 인간적 가치를 뒤엎는 상황에서 문제의 관건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물신문제를 누그러뜨리는 데 있다. 기대승이 청소년기에 접했던 정훈(庭訓), 그리고 이에 의거한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가치의 내면화 과정은 가정을 중심배경으로 하여 삶의 가치와 교육문제에 대한 올바른 지향점을 제시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한국의 비정상적인 교육열은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가족상과 비뚤어진 교육가치관을 짊은 배경으로 깔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교육문제는 원천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이기심과 경쟁심을 터득한 청소년들에게 상호신뢰와 인간애를 가르치는 일을 통해 풀여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가정과 부모에 대한 담론은 본질적으로 사회 전체와 구성원 모두를 향한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가정교육의 원천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견해가 논점을 험해하게 규정하거나 책임을 어느 일방에 전가하는 성격의 일은 아닐 것이다.

참고문헌

- 『論語』(/1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 『大學』(/1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 『中庸』(/1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 『周易』(/1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 『心經』(/1986). 서울：保景文化社.
- 『小學』(/1987). 서울：保景文化社.
- 『退溪全書』(/1971). 서울：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 『高峯集』(/1976). 서울：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 『國譯高峯集(Ⅰ・Ⅱ・Ⅲ)』(/1989-1997). 서울：民族文化推進會.
- 『國譯學圃文集』(/1993). 全南 和順：和順文化院.
- 『朝鮮王朝實錄』(/1985-1991). 國譯本. 서울：民族文化推進會.
- 박근섭(1990). 유교의 아동교육론. 청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 제1집, pp.67-88.
- 오종일(1992). 고봉사상의 입체적 조명, 그의 인생 역정을 따라서. 전통과 현실, 제2호, pp.7-89.
- 이원재(2001). 과거공부를 알아야 우리 교육이 보인다. 서울：문음사.
- 이을호(1973). 고봉사상 연원소고. 아세아연구, 제49호, pp.65-93.
- 정병련(1998). 한국철학의 심층분석Ⅲ. 광주：전남대학교 출판부.
- 황의동(2002). 고봉 기대승의 철학 연구. 광주：고봉학술원.

ABSTRACT

Studies in Ki Dae-Seung's Youth

Park, Kyoon-Seo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Ki Dae-Seung's early years, thereby provide a basis for understanding teen crisis in modern days. Having researched into Ki Dae-Seung's Youth, this study deals with the fact that a sense of one's identity or moral/ethical codes established during teen years can greatly affect a person through his lifetime. In the "Self Warning" written at the age of 19, Ki Dae-Seung pursued the intrinsic value of education and learning, and specified it like as the pleasure of learning, self-realization and the perfection of character. Education based on individual advancement and profit can only build a social structure which is competitive. To most of us, the meaning of life as a whole is not of primary importance, and our education emphasizes secondary values, merely making us proficient in some branch of knowledge. Though knowledge and efficiency are necessary, to lay chief emphasis on them only leads to social conflict and confusion. Consequently, delving into Ki Dae-Seung's early years proves its significance, for it addresses diversified researches on teen crisis of modern days, as well as adding depth to discussions on the subject. Thus, Ki Dae-Seung's example suggests that the present in fact a reflection of the past, that contemplation of the tradition can be a basis for profound understanding of our modern times.

* Lecturer, Sungkyunkwan University